

부지런한 자가 얻는다

본 문 로마서 12장 8-13절

참고 성구 잠언 12장 24절

잠언 12장 27절

잠언 13장 4절

잠언 19장 15-16절

잠언 19장 24절

잠언 22장 29절

잠언 24장 30-34절

<말씀 시작>

1. 부지런함도 <실천>이다. <실천>하는데 불이 붙으면, 부지런하게 된다.
2. 전도하는 자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관리자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관리하라.
3. <부지런한 자들>도 ‘행하지 않은 부지런함’ 이 없다.
4. 부지런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인들>만 미워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악한 짓>을 미워해야 그 길로 안 가진다.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멸시키고, 박대시키고, 불신하고, 외면하고, 뒤돌아서고 선에 속하라.
5.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부지런히 먼저 하라. <늦게 하는 자>는 ‘게으른 자’ 다.
6.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큰 것이

다.

7. <보이는 자>를 섬기지 못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보이는 주>를 섬김을 부지런히 하라.

8. <기도>에는 항상 부지런히 힘쓰고 행하라. 기도를 한 자들은 충격적으로 알 것이다.

9.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

10. <부림>을 받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다. 빨리하면 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니 시켜서 하게 된다.

11. <부지런한 민족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각종 종교들 중에 ‘부지런한 종교’가 있고 ‘게으른 종교’가 있다.

12. <게으른 종교는 게을러서 새로운 시대를 못 발견한다.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발견하는데, 안 쫓아다녀서 그렇다. <종교지도자>가 안 쫓아다녀도, <개인>이 쫓아다니면 새로운 역사를 발견한다.

13. <섭리역사>는 새로운 역사인데 ‘부지런히 쫓아다닌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에 왔다.

14.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을 때도 ‘유대종교 지도자’는 게을러서 주저앉아서 계속 보고만 받았다. 보고하는 자들이 자기 신앙대로 보고하니, 새로운 역사를 못 맞았다.

15. 부지런히 쫓아다닌 <사도바울>은 ‘유대종교인’이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발견해서 ‘사도’가 되었다.

16.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뛰고 달린 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발견했다. 게으른 자도 전도자가 부지런히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 마음이 감동되어서 부지런한 길로 찾아오게 되어 부지런한 자가 되었다.

17. <성경>을 진실로 10번, 20번, 30번 귀하게 읽고서 설교하는 자가 지구상에 많지 않다. 또 읽고, 또 읽고, 깊이 읽어야 한다.

18.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주’를 발견하고 ‘영계’를 발견하기 때문에, 성서를 아주 못 읽어도 10번씩은 깊이 읽어야 한다.

19. <성경을 푸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해야 풀어지고, ‘행해야’ 실감 있게 풀어진단다.

20. <실패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게을러서’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21. <자기>를 보면 안다. 자기가 과거에 게을러서 할 일을 못 해서 얻을 것을 못 얻은 것을 기억하면 된다. 먼저 <자기>로부터 알고 깨달아라.

22. 부지런히 살지 않아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여 무너지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

23. 마음 밭에, 생활 밭에 <잡초>가 나는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뽑지 않고 포기해버린다. <게으른 자들>의 집이나 밭에 가보면 지극히 기본적인 청소도 안 하고, 주변을 깨끗이 안 한다.

24. ‘영적’으로 보아도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의 생각 밭, 마음에는 경영하는 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 손덜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손을 안 댈단다.

25. 게으르면 게으름의 <잠든 자>가 되고, <소경>이 되어서 안 보인다.

26. <부지런한 자>의 눈에는 잘 보인다. 고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평생 한 번 밖에 안 지나가는데, 손을 대고 지나간다. 부지런한 자의 습관과 버릇과 능력과 권세다.

27. (하나님, 성령님, 성자) 내가 너희를 부지런히 살피고 이끌어주었다.

28. <하나님>이 요즘은 상당히 더 부지런하시다. ‘택함 받고 휴거된 신부들이 생겨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더 부지런하시다.

29. <주>도 옛날보다 더 부지런하다. 많은 따르는 시대 하나님의 신부들을 다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좋아서 하니 고달프지 않고 그 기쁨으로 뛰고 달린다.

30. <게으른 자>는 ‘자기’도 관리 안 해 죽이고, ‘자기가 관리하는 생명’도 죽인다. 전화 한 통이면 살리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다.

31. 게으르면, 주를 지혜롭게 못 본다. 슬기 있고, 지혜롭고, 재치 있고, 요령 있게 해야 본다. <코치를 해줘도 모르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렇다.

32. <게으름>은 하루 이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오게 되어서, 특히 ‘코로나 기간’에 게을러지는 것이 많아졌다. 모임이 없을 뿐이지, 개인의 위치에서는 부지런히 할 일을 하고 뛰어야 한다.

33. 물건을 살 때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다닌다. ‘이 물건이 정말로 이만한 가치가 있나?’ 보면, 그 가치가 안 나가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은 20배, 15배 깎고 산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알아봐서 그렇다. 또 어떤 물건은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기에, 알아보니 비싼 물건이다. 이것은 조금만 깎고 사야겠다 했다.

34.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다녀야 이것이 할 일인가 알 수 있다.

35. 게으르면 방에 앉아서 계산하려고 한다.

36. <게으른 것>도 큰 병 중에 하나로, ‘암 같은 무서운 병’이다. 게으름의 병은 부지런히 해야 고쳐진다. 늦으면 암이 전이되듯, 게으름이 전이되어 뒤덮인다.

37. 같은 위치에 있어도 <부지런한 자>가 얻을 것을 얻는다.

38. 부지런한 자가 먼저 보고, 깨닫고, 행해서 얻는다.

39. “저 사람에게 먼저 넘어갔다. 저 사람이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게으른 생각>이다. 연구하고 운명과 근본을 깨닫고 보면 아닌 것이 많다. 게을러서 안 알아보는 것이다.

40.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게으른 자에게는 줄 것도 안 준다. 게으르면 줘도 제대로 못 쓰니 너무 아깝다.

41. 섭리사도 지난 40년 동안 얻은 것을 보면 모두 부지런히 행해서 때가 되어 기적으로 얻은 것이다. ‘사탄’ 에게도 안 뺏기고 ‘악한 자’ 에게도 안 뺏기고, 모두 하나님의 자연 성전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모두 마음속에 넣어주기도 했다.

42. <선생>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한다. 10배, 20배, 50배, 100배 더하는 것도 있다. 그것은 ‘머리’를 써서 하고, ‘머리’로 진행해서 그러하다. ‘노동’ 으로서는 빨리해야 3배다.

43. 부지런해야 <자기>를 다스리고 <타인>도 다스린다.

44. 부지런해야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루를 1년같이 뜻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45. 오래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건강을 많이 챙겨

도 길어야 20년이다. 그러나 20년, 30년보다 20배, 30배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가치 있게, 근본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1년을 10년같이 살 수 있다.

46. 부지런히 행해야, 자기가 새롭게 할 일들이 흰히 보인다.

47. 부지런히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연성전을 도는데, <넘어져서 뿌리가 드러나 있는 소나무>가 ‘작품’으로 보였다. 이 나무는 뿌리가 다 드러났는데 아직 안 넘어졌다. 하나님은 바람 부는 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이 나무를 보며 부지런히 생각을 놀리지 않으니, 마치 섭리사에 ‘가정’의 어려움과 ‘개인’의 어려움과 ‘악평자’의 어려움 속에 넘어지다 멈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48. <부지런히 할 일>은 ‘나무가 안 넘어지게 해주는 일’이다. 이같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꼭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49. <시대의 휴거>를 시킨 ‘위대한 작품’인 너희가 겪은 비바람의 환란과 어려움을 덮지 말고, 간증도 하며 묶을 것만 단단히 묶어라.

50. 새 시대는 받을 것도 많고, 부지런히 해야 할 일도 많다.

51. 부지런히 해야 다스리고, 환란 때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52. <신부들>이니 열심을 내서 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신부가 안 되었을 때는 가꿔도 ‘알아줄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성령’도 알아주고 ‘성자’도 ‘주’도 알아주면서 귀히 쓰고 귀하게 여긴다.

53. <할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얻는 것도 부지런히 찾아야 찾는다. 게으른 자는 찾으려면 있는데 안 찾는다.

54. 기도하고 찾으면, 할 일이 눈에 띄고 깨닫게 될 때도 많다.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무조건 찾고 다니며 행해보아라. 그러면 할 일이 보이고 반드시 행할 것이 있다.

55. 부지런하면 <운명>이 뒤바뀌고 <앞뒤>가 뒤바뀐다. 부지런히 쫓아 다녀야 한다.

56.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 행해야 주와 동행할 수 있다.

57. 성공한 재벌가나, 예술가들, 정치인들, 세상의 멋쟁이, 아름답게 가꾼 자들, 멋있는 종교인들 다 <부지런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58. 연예인도 예술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엄청난 투자도 하고 부지런히 행한다. 밤잠 안 자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무대로 나간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배워서 한다.

59. <섭리사 모든 자들>도 연예인들 못지 않게 ‘하나님의 신부 입장’에서 하나님 보라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연예인들>은 ‘청중’에 얼굴을 보이려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께 한 번 잘 보이면 끝이다.

60. <게으른 자>는 ‘행하면 얻을 것’을 앞에 놓고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행하지 않는다. 게으르니 이것을 미루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게으른 자는 누구든지 보면 안다.

61. <미인>이라도 게으르면 추하게 보인다. 표가 난다. 이와 같이 <게으른 자>는 빈곤하게 되어서 신앙의 미인, 육적인 미인이라도 추하게 보인다.

62. 어느 날 주가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주를 보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맞고 육적으로 부지런히 예비하라. 부지런히 살아야 맞을 수 있다. 그래야 주가 와도 앉아 있다가 가고, 앉아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이야기 나누다 간다.

63. 하나님, 성령님은 너희가 어떻게 사는가 보시기 위해 늘 <주>를 쓰고 보고 계시다. ‘육체’ 만 오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된다. ‘영’ 으로도 가고 ‘마음’ 으로도 간다.

64. <준비치 않은 게으른 자>는 스쳐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앉았다가 얘기도 나누고, 할 얘기도 하고, 계획된 얘기도 하고 간다.

65. <교회 주변>도 살피면 할 일이 많다. ‘게으른 소경’ 이 되면 안 보인다. 좋은 교회를 사졌으니 살피야 한다.

66. 부지런하면 할 일이 보이고 기빠서 밤을 그저 썰 수가 없다. 눈 뜨고 해 뜨기만 기다리다 뛰어나간다.

67.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도록 매일 부지런하게 행하라.

68. 하나님이 집에도, 자기가 거할 곳도 가신다.

69. 지금은 주를 맞고 보는 시대다. 가상의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도적같이 오고 가는 실제의 시대다. 고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밤낮으로 뛰고 달리자.

70. 부지런하신 하나님, 성령님, 주이심을 깨달아라.

71. 결혼해서 남자는 부지런한데 여자는 게으르면 못 산다. 그러면 결국 헤어진다. 섭리를 떠난 자들도 게을러서 시대 에텐을 떠났고, 가서도 게으르게 행하니 그 게으름의 병은 낫지를 못한다.

72. 늘 하나님, 성령님은 부지런한 자와 동행하시고 행하신다.

73.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부지런히 행하는 자에게 할 일이 생각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74. <부지런히 하라>는 말씀은 삼위일체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게으른 자’에게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육도 영도 부지런히 행하여라. 말씀을 들었으니 행해야 된다.

75. 하나님과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길, “나는 빠른 구름을 타고 간다. 게으른 자는 타고 갈 수가 없다. 역사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새 역사를 맞은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지구상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손놀림이 빨라야 된다.” 하셨다.

76. 부지런히 행하는 그 자체가 권세이고 능력이다.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77.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각종 경기를 할 때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자가 한 골이라도 더 넣고, 한 번이라도 더 때려보고, 한 번이라도 더 넣어본다.

78. <시대 신부들>은 여자니까 부지런해야 한다.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신부들이다. 자녀권이 아니니 부지런해야 한다. 신앙의 자녀들 낳았으니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행하라.

79. <부지런한 자>가 단장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예쁘게도 만들고, 자기를 만든다.

80. <때>가 지나면 시간이 왔어도 못 한다.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81.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제 때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때 못입습니다. 바빠서 못 한다 하지만, 게을러서 못 한다는 말이 낫다.

82. 성령과 주와 행하면 게으를 수가 없다.

83. <비>가 ‘태풍’을 타면 빠르게 안 나를 수 없다. <구름>이 ‘태풍’ 타면 안 빠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성령’을 타면 안 빠를 수가 없다.

84. <성령을 받은 자>는 빨리 행한다. 발이 빠르고, 손도 빠르다. 성령의 불이 붙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

85. <모든 존재물>은 ‘열’이 나면 막 달린다. 자동차도 시속을 높을 때마다 열이 더 생기고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 열을 많이 내는 만큼 빨리 간다. 사람도 이와 같다.

86.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자는 게으른 자다.

87. 사람들은 행하기는 하는데 ‘늦게’ 행한다. 빨리 손 빠르게, 발 빠르게 행하지 않는다.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 머리를 중심하고 가야 한다.

88. <머리>를 중심해서 해야 빨리 간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 나라. <머리>가 빠지면 ‘대머리’가 된다.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다. 머리 빠지고 한 일은 부끄럽고 창피하게 일을 해놓았다.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머리를 빼놓고 하면 안 된다.

89. 빨리 행하기, 발 빠르게 행하기, 부지런히 행하기다. 빨리해야 동행할 수 있다. 느리면 답답하다.

9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행하는 자>는 ‘빨리 행하는 것’이 특성이다.

91. <부지런한 자>와 <부지런하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

이다.

92. <게으른 자>는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는 하면 되는데 안 해서 안 되었다. 잡을 것도 사냥치 않는다. 치타처럼 빠르게 뛰어라.

93. 어떤 자는 1년이면 갈 길을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어도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다.

94. 너희는 섭리를 만나 따라가고 있으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삶과 사고와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본다. 땅을 쳐다보라 했다.

95. 시대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구 시대적 신앙을 하는 자는 원시인적 신앙을 하는 자다.

96. 너희는 정녕코 이를 휴거를 이루고 사니, 휴거된 자들이 할 일은 부지런해야 한다.

97. <휴거된 자들>은 ‘생각’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얻은 것’이 달라야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믿고 살면서 ‘모든 것’이 차이가 있고 달라야 한다.

98. <느린 자>는 ‘게으른 자’다. 신부들은 재치 있고, 슬기 있고, 지혜 있는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99. <부지런한 자>가 ‘주’도 맞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맞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

100. 주가 시대의 표상이 되어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행해서 얻고 받은 것을 게으른 자들은 게을러서 못 누린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쳐 간다. 다행히 부지런한 자들이 쓴다.

101. 부지런해야 <건강>도 병이 안 든다. <신앙의 건강>도 ‘부지런함’에 달려있다.

102. 부지런한 자가 행할 때는 같이 행해야 시동이 걸린다. 실천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가 된다.

103. <게으른 자>는 즉시 행하여서 ‘암적인 병들’을 고쳐야 한다. 행하면 없어진다. 부지런하면 바로 없어진다. 일주일만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 시동을 걸고 행해야 한다.